2015년06월04일년 수능(생활과윤리)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20문제】 과목 구분 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①	⑤	②	⑤	⑤	③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③	②	④	③	③	①	④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20문제)

1. (ㄱ)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윤리학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혹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옳은 방안은 무엇인가?'와 같은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러한 사실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중립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②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논증의 타당성 입증을 중시하고 있다
③ 도덕 원리의 정립보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❹ 도덕 관행에 대한 기술보다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도덕 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ㄱ)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신문 ○○○○년 ○월 ○일
> **칼 럼**
> 최근 스포츠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올림픽에 참가한 A 선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의 참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A 선수는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나라 출신의 선수로 국제 수영 연맹의 특별 초청을 받아 출전하였다.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은 결승점에 도착하였지만, 그는 아직 중간 지점밖에 오지 못했고 이미 체력이 다하여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다. 분명 그 자신은 필찌로 결승점에 도달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온 힘을 다해 결승점을 향해 나아갔다. 이러한 모습에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A 선수의 모습에서 스포츠의 의의는 [㉠]에 있음을 알게 된다. …(후략)…

〈 보 기 〉
ㄱ. 불굴의 인내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
ㄷ. 최선을 다함으로써 관중에게 감동을 주는 것
ㄹ. 전술적 반칙으로 관중에게 재미를 주는 것

① ㄱ, ㄴ
❷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인종이나 성(性)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그른 것처럼, 우리 종(種)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다.
> 을: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종(種)을 재생산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① 갑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생태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❷ 갑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③ 을은 자연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의 대상이라고 본다.
④ 을은 생명을 인간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인간이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본다.

4. 다음 사상의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고정된 자성(自性)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공(空)하지 않다고 하면, 아직 얻지 못한 것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번뇌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 ○ 털끝 하나에도 끝없는 대지와 큰 바다가 들어 있으며, 끝없는 대지와 큰 바다가 티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고통이 없는 해탈을 이루게 될 것이다.

❶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하는 관계의 그물[網]이다.
②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禮法)의 근거이다.
③ 인간의 이성으로 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미성숙한 존재이다.
④ 인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유기적인 무위(無爲)의 체계이다.
⑤ 인간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적 가치의 총체이다.

5.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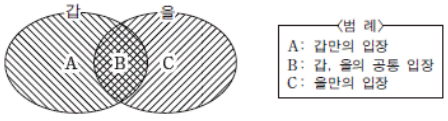
> 갑: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도덕적이다.
> 을: 원초적 입장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른 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① 갑은 개인의 선의지가 없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❺ 갑, 을은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가)
> 갑: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을: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

(나)



〈보 기〉
ㄱ. A: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ㄴ. B: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ㄷ. C: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ㄹ. C: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❷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오늘날 장기 이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에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 갑: 아닙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 을: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뇌의 명령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존엄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판정이 악용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뇌사 인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②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되는가?
③ 뇌사를 인정할 경우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④ 인간의 인격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의존하는가?
❺ 심폐사보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적절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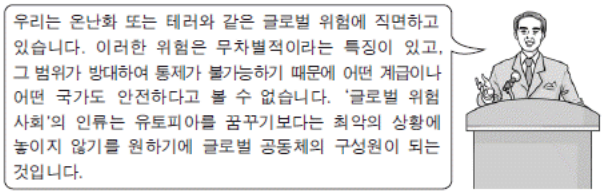
8.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인정(仁政)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계를 바로잡으면 토지를 바르게 분배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면 나라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
> ○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인(大人)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小人)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보 기〉
ㄱ. 직업 선택은 능력보다 선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ㄷ. 통치자는 구성원의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ㄹ. 개인의 노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윤택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❺ ㄴ, ㄷ, ㄹ

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글로벌 위험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② 글로벌 위험은 인류 전체를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있다.

❸ 글로벌 위험은 세계 시민주의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④ 글로벌 위험은 인류 공존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자각시키고 있다.

⑤ 글로벌 위기의 대응 원칙은 이익의 최대화가 아닌 위험의 최소화이다.

1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사회악의 근원을 개인의 이기심에만 돌리는 것은 진부한 처방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이윤 추구의 경쟁이 제한되는 비합리적인 관행은 타파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① 기업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② 기업에 대한 평가는 과정보다 결과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③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비합리적 관행은 인정되어야 한다.

④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때 보장되어야 한다.

❺ 기업의 합리적인 활동에 의한 최대 이윤 추구는 보장되어야 한다.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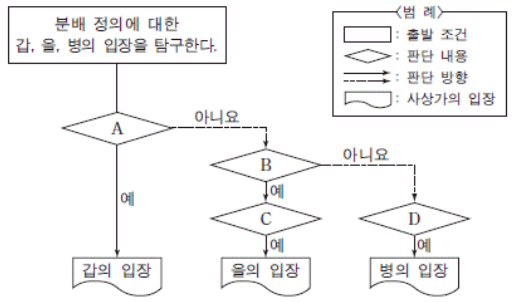
(가)

갑: 분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을 경우 정의롭다. 최소 국가만이 이러한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을: 분배는 필요에 따라, 노동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병: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

(나)



〈보 기〉

ㄱ. A: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로운가?
ㄴ. B: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ㄷ. C: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인가?
ㄹ. D: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❹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ㄱ)~(ㅁ)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 사상의 국제 관계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국제 관계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과 이익이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문화적 공통점을 찾아야 국제 체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나)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 권위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오직 힘의 논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 관계는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국제 관계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국가의 정체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계속 변화한다고 보며,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 국가 간에 공유하는 문화, 역사와 같은 공동의 기반을 토대로 조화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반면 (나)는 ㉢ 국가 간에는 이익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가 있을 수 없으므로 국제 관계는 이기적 갈등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며,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 국가 간 안전,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중립적인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 (가), (나)는 모두 이익이 충돌하는 국제 관계에서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① (ㄱ)
② (ㄴ)
③ (ㄷ)
❹ (ㄹ)
⑤ (ㅁ)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음악[樂]은 즐거움이다. 즐거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사람의 음성과 동작에는 성정(性情)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군자는 음악을 통해 도(道)를 얻음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망 채움을 즐거워한다.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면 즐거워도 혼란하지 않으며, 욕망으로 인해 도를 잃으면 혼란해져서 즐겁지 않게 된다.

〈 보 기 〉

ㄱ. 인간의 성정과 무관한 음악은 있을 수 없다.
ㄴ. 음악은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ㄷ. 예법에 맞는 음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ㄹ. 음악에 대한 도덕적 규제는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❶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가상 편지의 (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에게

네가 다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단다. 옛 선현들에 의하면, 군자는 친족을 사랑하며 백성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고, 만물에까지도 사랑이 미치게 해야 한다고 했단다. 이는 마치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이 자라고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지. 이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란다. [㉠]을/를 행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몸을 훼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증자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된 것을 보고 "비로소 걱정을 면했다"라고 안도했다고 하더구나. …(후략)…

〈 보 기 〉

ㄱ. 음양(陰陽)의 조화를 통해서 형성된 횡적 관계의 미덕이다.
ㄴ. 사회적 역할에 맞는 도덕적 행동으로 이름을 떨칠 때 완성된다.
ㄷ.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ㄹ. 혈연관계의 친밀함을 배제한 공평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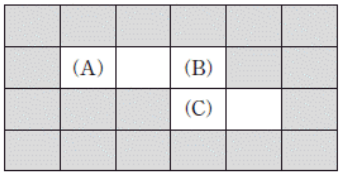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❸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가상 대담 속의 (ㄱ)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수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❷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③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마저 동의해야 진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④ 다수에 의해 확립된 의견이 진리의 표준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⑤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16.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덕이 있는 사람[德人]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며, 움직일 때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옳고 그름[是非], 예쁨과 미움[美惡]을 분별하여 가슴에 담아 두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모두가 흡족해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나)	 [가로 열쇠] (A):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 (C):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 예) "제사 드리기 전에 목욕○○하렴." [세로 열쇠] (B): …… 개념

① 어짊과 의로움을 쌓아 자연의 순리를 따르려는 노력이다.

② 사욕(私欲)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③ 선(禪)을 수행하여 아름다움의 가치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다.

❹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비우려는 노력이다.

⑤ 지속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 성인의 도(道)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

17.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를 얼마나 잘 겪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세계 모든 사람의 이익은 그 사람이 처한 국적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의 분배에 대한 전 지구적 단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 상황〉



① 원조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렴.

② 원조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함을 명심하렴.

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임을 명심하렴.

④ 원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베푸는 자선 행위임을 명심하렴.

⑤ 빈곤은 해당 국가의 자체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함을 명심하렴.

1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은 정보의 공유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보 소유권 보장이 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❸ 을은양질의정보생산을위해정보복제에제약이없어야한다고본다.

④ 갑은 정보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정보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19.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이성의 도구적 측면만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의사소통적 이성은 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즉 그것은 '담론'의 상황에서 작동되는데, 이른바 '공론장'에서 논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

❶ 시민들의 이성적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 전문가 집단의 토론 결과만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이익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시민 사회보다 관련 국가 기관이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갑: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다. 냉전 이후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집단, 인접 국가, 핵심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명 충돌은 종교와 같은 문화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을: 문명의 차이로 발생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은 관용과 화합의 의지로 극복될 수 있다. 문명 간의 개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문명 충돌이 아닌 문명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① 갑은 동일 문명권의 국가들이 핵심국을 중심으로 결속한다고 본다.

② 갑은 평화를 위해 문명 간에 공유하는 가치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문명의 발전은 타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❹ 을은 갑과 달리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은 분쟁의 원인이 문명의 이질성에, 을은 소통 단절에 있다고 본다.